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와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의 전가

김갑순

한라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kskim@hit.halla.ac.kr)

.....

내재세 실현의 증거로 여겨지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이이익률의 감소는 시장경쟁증가에 따른 제품공급과 생산요소수요의 증가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전순이익의 크기는 이러한 영향이외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특별손익의 영향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따라서 매출액과 세전순이익의 변동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혜택으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에 대한 분석은 내재세 실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완전경쟁적이지 않은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내재세 부담을 소비자나 생산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재세 전가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내재세 실현과정과 부담의 주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과 조세혜택,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와 조세혜택간의 관계를 통해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불완전경쟁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 전가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NSOE)과 자기자본재료비율(DMOE), 자기자본노무비율(DLOE)을 종속변수로 하고, Challihan과 White(1999)에서 시장구조특성변수로서 이용된 '시장집중도(CR4)'와 '시장점유율(MS)'을 Wilkie(1992)모형에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순매출액은 조세혜택증정치와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고, 시장구조특성변수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혜택이 클수록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의미로서 기업이 시장의 경쟁증가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라는 형태로 내재세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출액과 시장구조특성변수와의 양(+)의 관계는 시장지배력을 통한 소비자에게로의 내재세 전가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내재세 전가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내재세 실현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인건비를 하락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서론

Scholes와 Wolfson (1992)(이하 S&W(1992))에 의하면 시장이 완전경쟁균형 상태에 있다면 모든 투자자의 한계소득에 대해 동일한 총세율(total tax rate)이 적용된다. 이 세율은 국세청이 징수하는 외형세(explicit taxes)와 조세중립균형(the tax-neutral equilibrium)에서 이탈된 세전이이익률로부터 발생하는 내재세(implicit tax)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

실이 주는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비록 납세자가 낮은 외형세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쇄할 내재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총조세부담은 높은 외형세와 동시에 낮은 내재세를 부담하는 다른 납세자의 총조세부담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재세를 포함하는 균형상태의 총조세는 단지 시장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Wilkie(1992)는 S&W(1992)의 내재세 모델을

기업소득에 적용하여 '기업의 세전이익률과 세전조세혜택이 음(-)의 관계에 있다'는 '내재적 조세가설(the implicit tax hypothesis)'을 도출하여 기업소득에도 내재세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Wilkie(1992)의 '내재적 조세가설'은 우리 나라에서도 고종권(1996), 이준규와 이태희(1997), 김갑순(1999, 2000)의 연구에서 검증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에도 내재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Wilkie(1992)는 '내재적 조세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전경쟁시장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Wilkie(1992)에서 검증된 세전자기 자본이익률(PTROE)과 세전자기 자본조세혜택비율(PTTSE)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재세 실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이 추가로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pre-tax income, PTI)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 증가(재료비와 노무비가 감소)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도 증가하고, 매출액이 감소(재료비와 노무비가 증가)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Wilkie(1992)에 의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내재세는 조세혜택으로 인해 초과세후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세금우대활동(the tax-advantaged activities)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요소수요의 증가와 산출물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 탄력적이지 않은 한, 단위당 요소가격을 증가시키고 단위당 제품가격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결과 모든 기업의 세후이익이 동일할 때까지 세전순이익이 하락함으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Wilkie(1992)의 모형은 완전시장조건 성립과 제품가격의 감소와

요소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세전순이익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혜택으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재료비, 노무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세전이익률의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이익률의 감소를 내재세 실현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내재세의 예라 할 수 있는 비과세채권의 경우, 비과세채권수요의 증가로 인해 비과세채권의 가격이 일반채권과 동일한 세후이익률을 얻는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전이익률이 비과세로 인한 조세혜택을 상쇄시킴으로써 내재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한 채권수요의 증가라는 시장의 영향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세전이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제품가격과 생산요소가격의 변동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직접 반영되어 매출총이익의 크기와 변동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런 매출총이익에의 영향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까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매출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특별손익 등의 단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증가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 매출원가의 증가가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에 의해 상쇄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시장의 경쟁증가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나 매출원가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비용, 특별손실로 인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세전순이익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매출액의 감소와(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증가에 대한 증거가 존

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세혜택과 세전순이익 사이의 음(-)의 관계에 대한 증거만으로 내재세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Wilkie(1992)의 '내재적 조세가설'로써 내재세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실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내재세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내재세 전가 가능성이다. Wilkie(1992)는 완전경쟁적이지 않은 시장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상 초과세후이익률(extra-normal after-tax returns)의 획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내재세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기업의 세 기반요소 중 하나 이상이 부담하게 된다. 즉 주주는 수익성의 변동을 통해 부담하고, 소비자는 가격의 변동을 통해 부담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이나 고용수준의 변동을 통해 세금을 부담한다. 만약 조세부담 증감의 영향을 주주가 모두 책임진다면 기업은 납부세액의 변화에 따라 제품가격이나 원가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세의 증가(감소)가 주주로부터 소비자와(또는)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 제품가격이 상승(하락)하고(거나) 임금 또는 다른 원가가 감소(증가)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함에 따른 매출액의 유지나 증가 또는 근로자나 다른 생산요소공급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함에 따른 매출원가의 유지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세전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까지 직결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에 대한 분석 또한 세전순이익보다는 매출액, 재료비, 노무비와 조세혜

택, 시장구조특성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측정상의 오류(measurement error)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동기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매출액과 조세혜택, 제품의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와 조세혜택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내재세 실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이들 변수와 기업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나타내는 기업의 시장구조특성변수와의 관련성 여부를 통해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어떤 기업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대신에 가격과 원가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시장지배력변수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시장집중도비율(market concentration ratio)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다. 내재세와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조세정책상 기업들의 총조세부담 수준이 단지 기업의 조세혜택 사용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시장구조특성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총조세부담 측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두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은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를 얻기 위해 Wilkie(1992)와 Challihan과 White(1999)의 연구모형을 응용하여 새로운 다중회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매출액과 조세혜택, 제품의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와 조세혜택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내재세 실현에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측정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있다. 실제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현실의 시장은 완전시장과 다르므로, 내재세 실현에 기업의 시장 지배력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측컨대 제품판매시장에서의 매출액 감소로 내재세가 실현된다면 자기자본매출액비율과 조세혜택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생산요소구매시장에서의 생산요소가격 상승으로 내재세가 실현된다면 자기자본재료비율(자기자본노무비율)과 조세혜택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반면에 제품가격인상을 통한 소비자에게로의 내재세 전가가 이루어졌다면 자기자본매출액비율과 조세혜택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요소가격인하를 통한 요소공급자에게로의 내재세 전가가 이루어졌다면 자기자본재료비율(자기자본노무비율)과 조세혜택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세 전가의 원인이 시장지배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와 동시에 두 시장 특성변수와 자기자본매출액비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두 시장특성변수와 자기자본재료비율(자기자본노무비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주제 이외에 직접감면대상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내재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내재세와 산업조직이론(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3장에서는 실증연구가설을 도출한 후 실증분석대상표본과 회귀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그리고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문헌연구

2.1 내재세의 실현과 시장구조

Wilkie(1992)와 Wilkie와 Limberg(1993)는 상대적 조세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익에 대한 세액의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평균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ETR))에 대한 대체적 측정치를 개발하였다. 조세혜택(tax subsidy(TS))은 장부상 세전당기순이익(pre-tax book income (PTI))에 법정법인세율(t)를 곱하고 여기에서 당기 법인세비용(current tax expense(CTE))을 차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TS = (PTE \times t) - CTE$. 즉, 조세혜택은 기업의 현재 외형세부채와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법정최고세율로 과세될 경우의 외형세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조세혜택은 재무회계상 회계처리방법과 세무회계상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 차이(예를 들면, 다른 감가상각방법의 사용) 또는 영구적 차이(예를 들면, 비과세소득 또는 세액공제의 사용)에서 기인한다. 이 측정치는 주주지분(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비율화되어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ax subsidy on equity (TSE = TS/SE))로 표준화됨으로써 기업간, 시점간 비교가 가능해 진다.

Wilkie(1992)는 평균유효세율의 사용과 관련된 방법론상의 문제점들과 내재세의 존재에서 연구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세전이익률과 조세혜택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내재적 조세가설'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세전이익률과 조세혜택 사이의 음(-)의 관계는 예측보다는 약하게 나타났고 모든 표본기간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았다. Wilkie

(1992)는 실증결과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난 원인이 불완전 경제(imperfect economy)에 존재하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s) 또는 체계적인 측정상의 오류(systematic measurement error) 때문임을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Shackelford(1991)는 시장마찰에 기인한 조세혜택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금융기관은 과세소득으로부터 ESOPs(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에 따른 대부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소득으로 인해 외형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세액감면규정은 금융기관에 이러한 목적으로 대출할 동기를 제공하여 종업원 지주제를 장려하고, ESOPs 대부금의 자본비용을 낮출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낮은 이자율에 따른 낮은 자본비용은 내재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ESOPs 차입자에게로 지불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대출 금융기관에 의해 부과된 이자율이 이자소득공제를 고려한 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야 할 이자율만큼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tickney et al.(1983)은 General Electric과 리스목적 자회사(leasing subsidiary)의 재무제표를 검토함으로써 조세이전리스(tax-transfer leasing)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세이전리스규정(the tax-transfer leasing rules)은 "safe-harbor leasing" 규정으로도 알려진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ERTA)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조세혜택의 이전 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실질도 없는 조세목적만을 위한 특정 리스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조세혜택으로 인해 증가한 가격이 외형세의 감소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감소되어야 할 세전이익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두 연구 모두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않을 때, 외형세의 감소(증가)가 내재세의 증가(감소)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의 결과는 조세전가(income tax shifting)가 시장구조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Callihan과 White(1999)는 기업소득의 내재세에 대한 시장구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기업의 내재세에 대한 측정치를 개발하여 이 측정치와 세전이익률, 그리고 두 시장특성변수인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시장점유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내재세측정치와 세전이익률, 두 시장특성변수 사이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내재세를 전가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산업 내에서의 우월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과 내재세 수준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에 보여주고 있다.

2.2 비경쟁적 시장구조와 조세전가

산업조직론 이론의 시장구조-기업행동-기업성과 패러다임(the 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S-C-P))은 시장구조와 가격결정능력, 기업성과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적 틀(framework)을 제공해 준다. 이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의 구조(경쟁적 또는 비경쟁적 시장)가 그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가격결정, 광고전략 등)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수익성,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Mason, 1939).

제품시장은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서로 좋은 대체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은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 시장, 독점시장 등 네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시장의 유형은 시장구조, 기업행동과 경영성과에 관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의된 것이다.

이들 유형들 중 한쪽 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독점 시장(monopolistic market)이다. 독점시장의 구조는 하나의 판매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가격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쉽게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과점시장에는 판매자가 극소수 존재한다. 과점시장구조하에서는 판매자들은 그들의 가격결정이 독립적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가격담합(price collusion)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쉽게 발생할 수 있다(Chamberlin, 1993). 그러므로 소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이 가격결정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하에서는 판매자의 수가 과점시장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담합을 실행하기에 과점시장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경쟁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조정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기업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산업 내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다양한 기업들이 하나의 협의된 가격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Scherer와 Ross, 1990).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가격결정에 대해서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지 정상이윤만을 획득할 수 있다.

독점시장과 반대쪽 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이다. 이 시장에는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순용자

(price-takers)이다. 그러므로 이 시장의 판매자들은 기껏해야 정상이윤의 획득만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세와 관련된 맥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얻게된 가격과 원가에 대한 영향력은 기업차원에서 외형세절감액(explicit tax savings)을 기업내부에 유보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S&W(1992)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낮은 판매가격 또는 높은 제조원가로 인한 세전이익률의 감소로 인해 외형세절감액(조세혜택)이 상쇄되었을 것이다.

제품시장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장 내의 판매자의 수이다. 이러한 특성은 보통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시장집중도는 산업 내의 상위 기업들의 총매출액을 그 산업의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러므로 시장은 '산업'으로 정의된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데는 상위 4개, 8개 또는 20개 기업들의 매출액이 이용돼왔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측정치는 4기업 시장집중도(the four-firm concentration ratio)이다(Scherer와 Ross, 1990). 이 비율이 클수록 해당 산업 내의 상위 4개 기업들의 산업 내 매출액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클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1이다. 반면에 경쟁정도가 큰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일수록 과점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낮을 것이다. 시장집중도는 산업의 가격담합능력의 수준에 대한 대용치이다(Clarke et al., 1984).

대부분의 산업들은 규모가 다른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산업 내에서의 개별 기업의 위치 즉,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시장구조변수이다.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그 기업의 총매출액을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큰 것이다. 어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원가통제능력이나 제품차별화능력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larke et al., 1984).

이러한 산업조직론의 연구결과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 내의 기업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제품가격과 생산요소구입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세를 소비자나 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III. 실증연구가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조세혜택과 매출액, 재료비, 노무비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완전 시장에서는 조세혜택이 증가(감소)할수록 세전이익률이 감소(증가)하게 된다. 이 때 세전이익률의 감소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증가로 인한 제품가격의 하락,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내재세를 부담하게 되는 기업의 세전이익률의 하락은 조세혜택의 증가(감소)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증가)와 재료비와 노무비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증가(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들은 기업의 조세혜택과 그 기업의 매출액과 재료비, 노무비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 H₁₋₁ :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 H₁₋₂ :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재료비비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
- H₁₋₃ :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노무비비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

시장구조-기업행동-기업성과(S-C-P) 패러다임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기업일수록 담합을 통한 가격형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통제력은 제품판매가격과 생산요소구입가격 결정을 통해 세전이익률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집중도에 대한 대표적 측정치의 하나는 '4기업 시장집중도(CR4)'이다. 그리고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경영의 효율성 또는 제품차별화 우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기업의 산업 내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응치로서 이용된다(Shepherd, 1986). 앞에서 언급한 산업조직론의 S-C-P 패러다임에 의하면 시장구조의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내재세를 전가할 수도 있게 된다. 다음의 가설은 매출액 측정치와 재료비, 노무비측정치와 기업의 산업 내 지위로부터 유래된 시장지배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4기업 시장집중도변수(CR4)와 시장점유율변수(MS)가 매출액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면 기업이 시장구조를 통해 내재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면

기업이 시장구조를 통해 내재세를 원재료공급자와 근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H₂₋₁ : 시장구조특성변수(CR4와 MS)와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사이에는 양(+)¹⁾의 관계가 있다.
- H₂₋₂ : 시장구조특성변수(CR4와 MS)와 자기자본재료비율 사이에는 음(-)²⁾의 관계가 있다.
- H₂₋₃ : 시장구조특성변수(CR4와 MS)와 자기자본노무비율 사이에는 음(-)³⁾의 관계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의 시장구조특성이 기업성과에 양(+)⁴⁾의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에서 조세혜택과 매출액, 재료비, 노무비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의 전가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구조특성변수(CR4와 MS)가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양(+)⁵⁾의 관계를 가지는 상태에서 조세혜택과 매출액 사이에 양(+)⁶⁾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제품가격인상 등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재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상태에서 조세혜택과 재료비, 노무비 사이에 음(-)⁷⁾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생산요소가격인하 등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재세를 생산요소공급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들은 기업의 조세혜택과 그 기업의 매출액과 재료비, 노무비간의 관계를 통해 내재세의 전가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H₃₋₁ : 내재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가설

2-1이 성립하고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사이에는 양(+)⁸⁾의 관계가 있다.

- H₃₋₂ : 내재세가 원재료공급자에게 전가된다면 가설2-2가 성립하고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재료비율 사이에는 음(-)⁹⁾의 관계가 있다.
- H₃₋₃ : 내재세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면 가설2-3이 성립하고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과 자기자본노무비율 사이에는 음(-)¹⁰⁾의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가설들은 기업의 조세혜택을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로써 측정하였다.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의 분자인 조세혜택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과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법정최고세율로 과세될 경우의 법인세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은 재무회계상 회계처리방법과 세무회계상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간접감면 같은 일시적 차이(예를 들면, 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직접감면 같은 영구적 차이(예를 들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서 기인한다. 간접감면에 의한 조세혜택은 세액납부시기를 연기해주는 혜택으로서 조세혜택의 순효과는 유예된 세액의 현재가치와 미래 납부세액의 차액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직접감면은 해당되는 세액만큼을 영구히 감액해주는 조세혜택으로서 그 효과가 간접감면에 비해 크고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조세 실현에 있어서 간접감면의 영향보다는 직접감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도 검증하고자 한다.

H₄₋₁ : 간접감면보다 직접감면으로 인한 내재세

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직접감면대상기업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이 직접감면비대상기업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보다 낮다.

H₄₋₂ : 간접감면보다 직접감면으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직접감면대상기업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이 직접감면비대상기업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보다 높다.

H₄₋₃ : 간접감면보다 직접감면으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직접감면대상기업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이 직접감면비대상기업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보다 낮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이 부담하는 내재세가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세제상 다양한 측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큰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내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H₅₋₁ :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이 대기업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보다 낮다.

H₅₋₂ :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이 대기업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보다 높다.

H₅₋₃ :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이 대기업의 자기자본노무

비비율보다 높다.

3.1 실증표본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1995, 1996, 1997 표본연도에 대해 KIS-FAS로부터 추출하였다.

- 1)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상장된 금융관련이외의 산업에 속하는 12월말 결산기업
- 2) 산업 표본수가 4개 이상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
- 3) 증권거래법 92조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에서 법인세등명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4)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서 연도별 산업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기업
- 5) 자기자본이 음(-)이 아닌 기업

표본연도는 법인세등명세서자료의 입수가능성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금융관련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며 영업환경이 다르고 시장진입이 제한됨으로써 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수급량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관련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은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12월말 결산법인만 표본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 4기업 시장집중도(CR4)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세 번째 조건은 법인세등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총결정세액 정

보를 이용하기 위해 포함된 조건이다. 다섯 번째 조건은 자기자본이 음(-)인 경우에는 실증결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된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위에서 설명한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에 기초하여 산업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표 1>은 표본선정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의미하고, <표 2>는 최종 산업분류와 해당산업에 속하는 기업수를 제시하고 있다.

3.2 독립변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PTTSE)은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SE)의 세전등가치를 의미한다. 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TSE)은 조세혜택(tax subsidy)을 자기자본(SE)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값과 법인세등명세서상의 총결정세액의 차이로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조세혜

택을 측정함에 있어 법인세등명세서상의 총결정세액을 사용한 이유는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등에 포함된 특별부가세를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경상활동과 직접 관련된 조세혜택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동일한 과세표준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기업의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세혜택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제품과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재세 실현의 원인변수가 되는 조세혜택은 기업의 경상적 활동과 관련된 조세혜택이라 가정하고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세액을 조세혜택 계산에 사용하였다. 분모에 사용된 자기자본(SE)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값과 같다.

시장집중도(CR4)는 상장기업 중 순매출액 상위 4개 기업의 매출액 합계액을 해당산업의 총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상장기업의 순매출액은 KIS-FAS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간 산업총매출

<표 1> 표본기업의 선정절차

과 정	표본수
1. 2000년 KIS-FAS에서 추출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상장된 12월말 결산 제조기업의 기업-연 표본	1,467
2. 산업 표본수가 4개 미만인 산업의 기업-연 표본 차감	(24)
3. 법인세등명세서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기업-연 표본 차감	(194)
4. KOSIS에서 산업매출액을 구할 수 없는 기업-연 표본 차감	(13)
5. 자기자본(SE)이 0이하인 기업-연 표본 차감	(43)
6. $ R-Student' > 3$ 인 기업-연 표본 차감(순매출액 기준)	(7)
7. 총표본	1,186
8. 해당 표본연도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연 표본 차감	(104)
9. $ R-Student' > 3$ 인 기업-연 표본 차감(순매출액 기준)	(6)
10.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기업-연 부표본	1,076

〈표 2〉 산업별 표본 구성

산업코드	산업분류	기업-연 표본수
1500	음식료품제조업	81
1700	섬유제품제조업	60
1800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
1900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6
210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2
2300	코크스·석유정제·핵연료	18
24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9
2500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
26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6
2700	제1차 금속산업	70
280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
2900	기계 및 장비제조업	42
300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5
310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5
320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
330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
34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4
35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360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5
4500	건설업	111
510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6
5200	소매업	17
6000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	21
6100	수상운송업	7
합 계		1,186

액은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업 i 의 산업 내 시장점유율(MS)은 산업총매출액에 대한 기업순매출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

자(기업의 순매출액)는 KIS-FAS에서 얻었고, 분모(산업의 총매출액)는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서 얻었다.¹⁾

1) KIS-FAS는 기업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순매출액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만이 포함되었다. KOSIS는 산업의 좀더 많은 기업들이 포함된 표본으로부터 조사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KIS-FAS에 포함된 표본기업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KIS-FAS의 산업총매출액을 분모로 사용한다면 몇 개의 산업에서는 산업이 명백하게 경쟁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에 가깝게 계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KOSIS의 산업총매출액이 시장점유율 계산시 분모로 사용되어야 한다.

3.3 회귀모형

가설1(H₁)부터 가설5(H₅)까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I〉

$$NSOE(DMOE,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epsilon$$

〈모형 II〉

$$NSOE(DMOE,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DTA_i + \epsilon$$

〈모형 III〉

$$NSOE(DMOE,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SML_i + \epsilon$$

NSOE_i = 기업 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DMOE_i = 기업i의 자기자본재료비율

DLOE_i = 기업i의 자기자본노무비율

PTTSE_i = 기업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CR4_i =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MS_i = 기업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i의 매출액)

DTA_i = 기업i에 직접조세감면이 있으면 1, 아니면 0

SML_i =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ε = 잔차항

IV. 실증결과분석

표본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량(표 3)에 제시되어 있다. NSOE의 범위는 0.137에서 73.401까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N = 1,186)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NSOE	3.943	5.712	2.634	0.137	73.401
DMOE	1.173	1.841	0.761	0	30.370
DLOE	0.227	0.333	0.144	0	4.457
GPOE	0.670	1.066	0.413	-3.042	14.665
PTTSE	-0.041	0.266	-0.003	-5.924	0.607
CR4	0.294	0.220	0.197	0.034	0.908
MS	0.018	0.044	0.004	0.000	0.415

NSOE_i : 기업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DMOE_i : 기업i의 자기자본재료비율

DLOE_i : 기업i의 자기자본노무비율

GPOE_i : 기업i의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

PTTSE_i : 기업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CR4_i :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MS_i : 기업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i의 매출액)

지이고 평균은 자기자본의 4배에 가깝다. DMOE와 DLOE의 경우 최소값이 0인 이유는 표본 기업들 중 제조기업이 아닌 중개업과 운송업 같은 서비스업(예를 들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 수상운송업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경우 재료비나 노무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귀분석과정에서는 DMOE와 DLOE가 0인 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PTTSE의 범위는 -5.924에서 0.607까지이고

평균은 자기자본의 -4.1%이다. 음(-)의 PTTSE는 기업이 법정최고세율을 초과하여 외형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음(-)의 PTTSE는 조세를 증가시키는 항목들(예를 들면,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 등)에 의한 조세증가가 조세혜택의 사용으로 인한 외형세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CR4의 범위는 0.034에서 0.908로서 산업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S의 범위도 0.000에서 0.415로서 상장기업별 시장

〈표 4〉 주요 변수들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N = 1,186)

변수	DMOE	DLOE	GPOE	OPIOE	ORIOE	PTROE	PTTSE	CR4	MS
NSOE	0.338***	0.341***	0.573***	0.123***	-0.367***	-0.372***	-0.366***	0.137***	0.190***
DMOE		0.672***	0.347***	-0.533***	-0.385***	-0.394***	-0.420***	0.014***	0.078***
DLOE			0.344***	-0.046	-0.304***	-0.322***	-0.347***	-0.097***	-0.031
GPOE				0.472***	-0.088***	-0.094***	-0.100***	-0.084***	0.052*
OPIOE					0.551***	0.534***	0.485***	-0.010	0.153***
ORIOE						0.985***	0.929***	-0.025	0.011
PTROE							0.910***	-0.032	0.008
PTTSE								0.000	0.011
CR4									0.215***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NS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DM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

DL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

GP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

OPI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영업이익비율

ORI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경상이익비율

PTR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법인세차감전순이익비율

PTTSE_i : 기업_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CR4_i : 기업_i가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MS_i : 기업_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_i의 매출액)

점유율의 범위도 매우 넓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 행렬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NSOE변수는 DMOE, DLOE, GPOE, OPIOE, CR4, MS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ORIOE, PTROE, PTTSE와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OE와 ORIOE, PTROE 간에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액이 많은 표본의 경상이익이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매출액이 작은 표본에 비해 오히려 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전순이익을 이용한 내재세 실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영업외손익과 특별손익을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과도 연관된다. 독립변수 PTTSE는 NSOE, DMOE, DLOE, GPOE와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CR4나 MS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지배력과 조세혜택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R4와 MS는 유의적인 상관관계(상관계수 = 0.215, $p = 0.01$)가 있으나 상관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PTTSE와 NSOE 사이에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가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PTTSE가 DMOE와 DLOE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DMOE와 DLOE의 NSOE에 대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는 매출액과 제조원가 사이의 구조적인 비례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4.1 모형 I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5>는 모형 I 을 이용하여 분석한 가설 1, 2, 3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다. 법인세등명세서상의 결정세액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업의 조세혜택(TSE)에는 당기 조세효과뿐만 아니라 당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효과까지도 포함되어 조세혜택을 과대 측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간 상대적 조세혜택의 비교가 왜곡될 수 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들로 인해 본 분석에 편의(bias)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의 회귀모델을 법인세등명세서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진 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 또한 분석하였다.

패널 A는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NS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 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PTTSE는 NS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13.982$, $p = 0.0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PTTSE가 증가함에 따라 NS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W(1992)모델과 <가설 1-1>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내재세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NSOE는 시장집중도(CR4)($t = 3.739$, $p = 0.01$, 단측검정)와 시장점유율(MS)($t = 6.408$, $p = 0.01$, 단측검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서 시장지배력(CR4, MS)이 증가함에 따라 NSOE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PTTSE와 NSOE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가설 3-1>은 기각된다. 즉,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내재세 전가의 가

능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조세혜택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증가는 PTTSE가 큰 기업의 NSOE를 감소시킴으로써 내재세가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유의적인 수준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과 함께 내재세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패널B는 자기자본재료비비율(DM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PTTSE는 DM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11.412, p = 0.0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PTTSE가 증가함에 따라 DM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W(1992)모델과 <가설 1-2>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DMOE와 NSOE간의 구조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수요증가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이 유의하게 이루어졌다면 PTTSE와 DMOE간의 음(-)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PTTSE와 NSOE간의 음(-)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약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재료가격과 수급으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은 유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리고 DMOE는 시장집중도(CR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양(+)의 관계가 있고, 시장점유율(MS)($t = 5.668, p = 0.01$, 단측검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2>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서 시장지배력(CR4, MS)이 증가함에 따라 DMOE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제품판매시장지배력과 원재료구매시장지배력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써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동시에 <가설 3-2>는 기각된다. 즉, 조세혜택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증가가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재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재세가 실현될 가능성과 시장지배력을 통해 원재료공급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패널C는 자기자본노무비비율(DL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PTTSE는 DL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22.532, p = 0.0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PTTSE가 증가함에 따라 DL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B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S&W(1992)모델과 <가설 1-3>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DLOE와 NSOE간의 구조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수요증가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이 유의하게 이루어졌다면 PTTSE와 DLOE간의 음(-)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PTTSE와 NSOE간의 음(-)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약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와 노동력수급으로 인한 내재세의 실현은 유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리고 DLOE는 시장집중도(CR4) ($t = -2.877, p = 0.01$, 단측검정)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가 있고, 시장점유율(MS)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양(+)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3>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서 시장지배력(CR4)이 증가함에 따라 DL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내재세 전가의 가능성이 존

〈표 5〉 모형 I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패널 A	$NS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86)	2.440 (9.655)***	-7.879 (-13.982)***	2.609 (3.739)***	22.102 (6.408)***	0.179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6)	1.872 (5.936)***	-8.309 (-12.137)***	3.474 (4.021)***	32.270 (7.754)***	0.180
패널 B	$DM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03)	1.175 (17.009)***	-0.832 (-11.412)***	0.007 (0.040)	5.762 (5.668)***	0.136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13)	1.192 (18.491)***	-0.832 (-12.786)***	-0.155 (-0.871)	5.065 (5.443)***	0.170
패널 C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11)	0.261 (18.489)***	-0.894 (-22.532)***	-0.112 (-2.877)***	0.142 (0.691)	0.339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20)	0.275 (20.407)***	-0.460 (-34.486)***	-0.150 (-4.000)***	0.056 (0.287)	0.564
패널 D	$GP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91)	0.738 (13.925)***	-1.268 (-18.631)***	-0.502 (-3.425)***	1.791 (2.508)***	0.231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8)	0.662 (19.103)***	-0.357 (-4.719)***	-0.380 (-4.010)***	1.903 (4.208)***	0.040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단측검정). 괄호 안은 t 값.

NS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DM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

DL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

GP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

PTTSE_i : 기업_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CR4_i : 기업_i가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MS_i : 기업_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_i의 매출액)

재하고, 동시에 PTTSE와 DLOE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노동력시장에서의 내재세 비실현이 근로자에 대한 내재세 전가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패널D는 순매출액과 재료비, 노무비에 대한 조세혜택의 영향이 매출총이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GP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결과이다. PTTSE는 GP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18.631, p = 0.0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PTTSE가 증가함에 따라 GP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효과가 근로자에 대한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해석된다. 한편 CR4는 GP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3.425, p = 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들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는 전체표본에서 법인세등명세서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을 제외한 부표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실행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4.2 모형II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6〉은 모형II를 이용하여 분석한 가설4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다. 모형II는 모형 I에 DTA를 독립변수로서 추가한 모형이다. DTA는 더미변수로서 법인세등명세서상 직접감면이 발생한 기업은 1의 값을 갖고, 직접감면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0의 값을 갖는다.

패널A는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NSOE)을 종속

변수로 한 모형II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DTA는 NS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3.497, p = 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DTA가 1 즉, 직접감면대상기업의 경우에 NS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1〉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간접감면대상기업보다 직접감면대상기업의 경우에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패널B와 패널C는 자기자본재료비비율(DMOE)과 자기자본노무비비율(DL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II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DTA는 DMOE 뿐만 아니라 DLOE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DTA가 1 즉, 직접감면대상기업인 경우에 DMOE, DL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2〉, 〈가설 4-3〉에서 예측한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DMOE, DLOE와 NSOE간의 구조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직접감면대상기업의 경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했다면 패널B와 패널C의 DTA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패널B와 패널C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생산요소시장의 가격탄력성이 제품시장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써 직접감면대상기업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로 인한 차별적 내재세 실현의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패널D는 기업의 직접감면대상여부가 매출총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GP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II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결과이다. DTA와 GPOE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6) 법인세 직접감면 여부를 고려한 모형II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패널 A	$NS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DTA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83)	3.381 (13.478)***	-7.586 (-16.726)***	1.093 (1.963)**	17.513 (6.395)***	-0.880 (-3.497)***	0.236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3)	2.821 (12.045)***	-8.249 (-20.655)***	1.080 (2.171)**	18.170 (7.583)***	-0.390 (-1.682)**	0.329
패널 B	$DM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DTA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01)	1.270 (15.639)***	-0.834 (-12.212)***	-0.037 (-0.206)	5.954 (6.287)***	-0.160 (-2.003)**	0.161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13)	1.269 (15.131)***	-0.821 (-12.544)***	-0.140 (-0.783)	5.086 (5.468)***	-0.117 (-1.428)*	0.171
패널 C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DTA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09)	0.295 (18.012)***	-0.756 (-19.024)***	-0.105 (-2.954)***	0.099 (0.530)	-0.053 (-3.363)***	0.299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18)	0.298 (16.856)***	-0.718 (-12.884)***	-0.121 (-3.329)***	0.083 (0.438)	-0.058 (-3.387)***	0.200
패널 D	$GP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DTA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89)	0.719 (12.658)***	-1.256 (-21.196)***	-0.427 (-3.379)***	1.846 (3.004)***	-0.042 (-0.744)	0.286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9)	0.588 (12.087)***	-1.269 (-26.716)***	-0.411 (-3.964)***	1.945 (3.936)***	0.070 (1.461)*	0.407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단측검정). 괄호 안은 t 값.

NSOE_i : 기업*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DMOE_i : 기업*i*의 자기자본재료비비율

DLOE_i : 기업*i*의 자기자본노무비비율

GPOE_i : 기업*i*의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

PTTSE_i : 기업*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CR4_i : 기업*i*가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MS_i : 기업*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i*의 매출액)

DTA_i : 기업*i*가 직접감면대상이면 1, 아니면 0

〈표 7〉 중소기업 여부를 고려한 모형Ⅲ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패널 A	$NS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SML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83)	3.276 (14.498)***	-0.319 (-3.062)***	1.288 (2.029)**	15.131 (4.842)***	-1.096 (-2.745)***	0.040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3)	2.639 (14.479)***	-8.370 (-21.465)***	1.250 (2.487)***	16.958 (6.980)***	-0.846 (-2.623)***	0.332
패널 B	$DM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SML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02)	1.196 (17.964)***	-0.846 (-12.092)***	-0.044 (-0.234)	5.753 (5.786)***	-0.126 (-1.099)	0.152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11)	1.152 (18.984)***	-0.790 (-12.990)***	-0.031 (-0.182)	4.965 (5.621)***	-0.089 (-0.854)	0.179
패널 C	$DL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SML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008)	0.260 (20.861)***	-0.731 (-19.257)***	-0.102 (-2.917)***	0.064 (0.351)	-0.011 (-0.562)	0.277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918)	0.260 (19.335)***	-0.768 (-14.191)***	-0.121 (-3.235)***	0.040 (0.209)	-0.019 (-0.861)	0.191
패널 D	$GPOE_i = \beta_0 + \beta_1 PTTSE_i + \beta_2 CR4_i + \beta_3 MS_i + \beta_4 SML_i + \epsilon_i$					
	β_0	β_1	β_2	β_3	β_4	\bar{R}^2
전체 기업-연 표본 (N=1187)	0.716 (17.341)***	-0.476 (-5.336)***	-0.344 (-2.989)***	1.575 (2.813)***	-0.172 (-2.368)***	0.040
이월결손금 제외한 기업-연 표본 (N=1078)	0.674 (19.282)***	-0.354 (-4.686)***	-0.343 (-3.578)***	1.706 (3.718)***	-0.146 (-2.355)***	0.044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단측검정). 괄호 안은 t 값.

- NS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
- DM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재료비율
- DL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노무비율
- GPOE_i : 기업_i의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
- PTTSE_i : 기업_i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 CR4_i : 기업_i가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4기업 시장집중도)
- MS_i : 기업_i의 시장점유율(산업총매출에 대한 기업_i의 매출액)
- SML_i : 기업_i가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이러한 결과는 직접감면으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효과가 매출총이익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는 전체표본에서 법인세등명세서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을 제외한 부표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실행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4.3 모형Ⅲ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7〉은 모형Ⅲ을 이용하여 분석한 가설5에 대한 검정결과를 나타낸다. 모형Ⅲ은 모형Ⅰ에 SML을 독립변수로서 추가한 모형이다. SML은 더미변수로서 표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패널A는 자기자본순매출액비율(NS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Ⅲ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SML은 NSO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t = -2.745, p = 0.01$, 단측검정)가 있는데, 이는 SML이 1 즉, 중소기업인 경우에 NSOE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5-1〉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내재세의 실현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패널B와 패널C는 자기자본재료비비율(DMOE)과 자기자본노무비비율(DL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Ⅲ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SML은 DMOE뿐만 아니라 DLOE와도 음(-)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가설 5-2〉, 〈가설 5-3〉에서 예측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DMOE, DLOE와 NSOE간의 구조적인 양(+)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표 6〉의 DML변수와 달리 음(-)의 관계가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

출액 감소의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정도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상승이 발생했다는 증거로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차별적 내재세 실현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패널D는 기업의 중소기업여부가 매출총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자본매출총이익비율(GPOE)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Ⅲ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결과이다. SML과 GPOE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혜택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효과와 재료비, 노무비 증가효과가 매출총이익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는 전체표본에서 법인세등명세서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을 제외한 부표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실행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6〉과 〈표 7〉에서 DTA와 SML을 제외한 다른 독립변수들에 관한 결과는 〈표 5〉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한계점과 미래 연구의 방향

Wilkie(1992)에서 비롯된 기업 내재세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혜택과 세전순이익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재적 조세가설(the implicit tax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결과가 내재세 실현의 증거로서 제시되었다. '내재적 조세가설'에 의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내재세는 조세혜택으로 인해 초과세후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세금우대활동(the tax-

advantaged activities)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요소수요의 증가와 제품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탄력적이지 않은 한, 단위당 생산요소가격을 증가시키고 단위당 제품가격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결과 모든 기업의 세후이익이 동일해질 때까지 세전순이익이 하락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세전순이익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위당 제품가격의 감소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 단위당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원가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조-기업행동-기업성과(S-C-P) 패러다임에 의하면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과 시장점유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기업일수록 가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제품판매가격과 생산요구입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세전이익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내재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비자나 생산요소공급자에게 전가(shift)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하는지와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 전가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연구가설을 도출한 후 Wilkie(1992)와 Challihan과 White(1999)의 연구모형을 응용하여 개발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접감면대상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적 내재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출액과 조세혜택측정치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으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출액과 시장구조변수(CR4, MS)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조세혜택측정치 사이의 음(-)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이 매우 높으므로 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내재세 전가가 내재세의 실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재료비와 조세혜택측정치, 노무비와 조세혜택측정치 사이에도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매출액과 재료비, 매출액과 노무비간의 구조적인 양(+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재료비의 경우는 시장점유율(MS)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무비의 경우는 시장집중도(CR4)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비는 증가하고, 노무비는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내재세 전가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고,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내재세 전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기업의 직접감면대상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인 DTA와 중소기업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인 SML을 모형에 도입하여 직접감면대상기업과 중소기업의 내재세 실현의 차별성여부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DTA, SML변수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감면대상기업과 중소기업인 경우에 매출액의 감소가 유의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내재세 실현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출액과 조세혜택, 기본원가(재료비

와 노무비)와 조세혜택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내재세 실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시장구조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요소공급자에 대한 내재세의 전가 가능성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차별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매출액과 조세혜택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내재세의 실현이 원가의 상승보다는 매출액의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재세를 전가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산업 내에서의 우월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내재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질 조세입법의 총조세효과, 즉 조세의 외형적 효과와 내재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에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접 조세감면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혜택이 내재세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는 앞으로의 조세입법과정과 조세부담측정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해석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재무제표자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측정상의 오류(systematic measurement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제표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은 역사적 원가에 의한 평가, 기업별·기간별 회계방법과 법인세 계산 규정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장구조가 매우 다를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산업의 횡단면 자료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의한 분류는 산업의 범위가 넓고, 표본기업들이 업종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편의(bias)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첫째, 횡단면 자료가 시장구조의 많은 특성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점과, 특히 다각화된 기업을 하나의 산업분류상의 산업으로 분류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의 특성을 좀더 적절하게 고려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시장특성에 대한 더 적절한 정의와 외형세와 내재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좀더 구체적인 세법 규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연구방법들 중의 하나는 비정상이익률연구(abnormal returns study)라 할 수 있다. 양(+)의 비정상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은 그들의 외형세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내재세를 부담할 것이다.

둘째, 조세혜택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Wilkie(1992)의 조세혜택측정치는 집합적 성격의 조세혜택을 의미하므로 조세혜택을 내재세 실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측정치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매출액과 기본원가(재료비와 노무비)를 이용한 내재세 실현의 검증과 시장구조를 이용한 내재세 전가에 관한 첫 시도라 할 수 있으므로 내재세 전가여부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의 몫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종권 (1996),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277-299.
- 김갑순 (1999), "조세혜택의 증분으로 인한 기업의 내재적 조세",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1-23.
- _____ (2000), "내재적 조세의 실현과 시장진입장벽", *회계학연구*, 제25권 제2호, 27-49.
- 이준규, 이태희 (1997),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정운오 (1996),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세금효과", *세무학연구*, 제8호, 101-124.
- _____ (1998), "미시경제학에 근거한 세무회계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3호, 107-135.
- _____ (1999), "무기명채권의 암묵세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325-348.
- _____ (2000), "세무회계 연구방법론", *한국세무학회 동계 세무학 WORKSHOP 교재*, 17-27.
- Callihan, Debra S. and Richard A. White (1999), "An Application of the Scholes and Wolfson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Taxes and Firm Market Structur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No 1 (Spring), 1-19.
- Chamberlin, E. (1933),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e, R., S. Davies, and M. Waterson (1984), "The profitability-concentration relation: Market power or efficienc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 435-450.
- Mason, E. (1939), "Price and production policies of large-scale enterprise", *American Economic Review*, 29, 61-74.
- Scherer, F., and D. Ross (1990),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Third edi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Scholes, M. and M. 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hackelford, D (1991), "The market for tax benefits: Evidence from leveraged ESOP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117-145.
- Shepherd, W (1986), "Tobin's Q and the structure-performance relationship: Com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December), 1205-1210.
- Stickney, C., R. Weil, and M. Wolfson (1983), "Income taxes and tax-transfer leases: General Electric's accounting for a Molotov Cocktail", *The Accounting Review*, 63, 439-459.
- Wilkie, P (1992),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Spring), 97-116.
- Wilkie, P. and S. Limberg (1993),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payers: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Spring), 46-71.

New Evidence on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and Implicit Taxes Shifting through Firm Market Structure**

Kapsoon Kim*

Abstract

In previous studies are provided results which consist with the implicit taxes hypothesis as evidence on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The implicit taxes hypothesis premise that pre-tax income and gross-profit are changed in same direction. But size of pre-tax income is affected by not only sales and costs of goods sold but also selling &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non-operating income(expenses) and extraordinary gains(loss). Therefore in cases in which change direction of sales and pre-tax income is not consistent, the investigation on relation between tax advantage and sales(direct material cost and direct labor cost) can provide new evidence on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And market structures that are other than perfectly competitive can give distinctive market power to the firm. The potential market power of the firm can provide the opportunity to shift implicit tax burdens from the firm to consumers or labor. So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ssibility of shifting implicit taxes should allow to understand how can be implicit taxes realized and who bears implicit taxes.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cross-firm and through-time relations between net sales on equity(NSOE)(direct material cost on equity(DMOE), and direct labor cost on equity(DLOE))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and pre-tax subsidy on equity(PTTSE) and firm market structure characteristics(CR4 and M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net sales on equity(NSOE) i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the pre-tax tax subsidy on equity(PTTSE) and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firm market structure characteristics(CR4 and M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NSOE and PTTSE indicate

* Full-time Instructo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Halla Univers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99-003-C00383)

that implicit taxes are realized by reducing sales. Als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NSOE and CR4 and MS indicate that there is a potential possibility of shifting implicit tax burden to consumers. But direct evidence on shifting implicit tax burden can not be found.

Key Words : Implicit taxes, Tax subsidy on Equity, Market Structure,
Market Concentration, Tax Shifting